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 인수위, 민선 9기 도정 청사진 공개

20일간의 공식 활동 마무리
7대 목표 · 139개 과제 제시
재생에너지 · AI 로봇 등
10대 핵심과제 별도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민선 9기의 새로운 도정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새로운 도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2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는 지난달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원택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도정 비전과 함께 성장 · 균형 · 참여 ·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7대 목표와 29개 추진전략, 139개 도정 과제가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원택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별도로 선정했다.

10대 핵심 과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및 연금도시 조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한 전북 정신 확립, 전북 성장 선도기관 설립, 전북특별법 기반 체감 성장, AI 로봇 K-밸리 조성, 첨단산업 융수 ·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새만금 과학기술단지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살아있는 문화유산 관리 및 융복합화, 전북형 전세세 포괄 SOS 돌봄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10대 우선 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전북권 행정체계 개편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출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도지사 직속 체감성장위원회 설치, 제6 금융중심지 조성, 원스톱 성장지원센터

운영, 피지컬 AI 전략위원회 구성, 전북 농정 거버넌스 강화,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 승인심사 대응, 어르신 일자리 10만 개 확대 등이 선정됐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동안 실국별 업무보고와 현장 점검,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며 도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산업 육성, 도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차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정리했다.

신형식 인수위원장은 “이번 최종보고서는 향후 4년간 전북 대전환을 위한 중앙 설계도”라며 “도민 주권과 체감 성장을 중심으로 전북이 스스로 성장하는 자립형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원택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와 현장 중

심의 검토를 통해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 첫날부터 속도감 있게 도정을 추진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북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전북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은 이번 인수위 보고서를 토대로 도민 체감형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균형발전,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됐다. 특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과제와 우선 과제를 별도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현대차 2단계 투자 반드시 성사”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800조 반도체 투자계획 아쉬워
피지컬AI 등 새 출발점 마련... 6개월간 모든 역량 집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인 정부의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에서 전북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2단계 투자 유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를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에서 “광주 · 전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호남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삼중 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에서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실망을 수백배 앓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와 여러 차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발표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며 “지역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남 전체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중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지역 간 경쟁보다 상생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피지컬 AI와 현대자동차 투자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6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대자동차의 2단계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 생산시설 8기 가운데 우선 4기를 결정할 만큼 앞으로 충분한 기회는 남아 있다”며 “전북과 새만금이 가진 전력 과 산업용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미래 반도체 산업 유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보가 첨단산업 유체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금만 더 갖췄다면 이번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용수 공급체계와 트라이포트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반도체와 첨단산업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분산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은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과 추가 투자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미래를 준비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인수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강력 규탄

“반도체 800조, 전남광주에 집중... 전북엔 단 한 톨도 반영 안돼”
피지컬AI 산업 전북 집중육성 · 반도체 기업 투자 계획 등 요청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는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를 마친 뒤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발표한 총 1,461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남권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주 · 전남에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집중된 반면 전북은 단 한 톨의 투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50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서도 전북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존의 교통 · SOC · 국가사업 소외를 넘어선 4중 소외”라고 규정하며 “180만 전북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피지컬AI 산업의 전북 집중 육성 △전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 계획의 즉각적인 제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전북도민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줬다”며 “무너진 지역 균형발전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 전북의 생존권과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토부, 무주 항공 · 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전북 무주군이 ‘항공 · 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무주군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의제와 조세 · 부담금 감면 등 모두 73가지의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무주군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유연대로) 텀과 체결한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투자협약(MOU)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무주군 일원 119만2,247㎡ 부지에 총 3,488억 원을 투자해 발사체와 엔진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미래 신산업 거점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동부권이 나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증후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 육성해 더 많은 민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당대표 도전’ 민주 송영길 의원, 전북서 타운홀 미팅

“전북의 가능성 끝까지 뒷받침하겠다”

오는 8월 17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전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가진데 이어 기자와 30일 오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북 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29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되면서 전북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송 의원은 먼저 지역 간 갈등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광주 · 전남에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지방으로 국가 투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북과 전남이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하직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큼 실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북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전북의 핵심 성장축으로 새만금을 꼽았다.

송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인 벤처 농업과 첨단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벤처 농업대학과 세계적인 농업기업을 유치해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혁신을 통한 발전이 전북의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짧은 전화 인터뷰였지만 송 의원은 전북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동시에 전북 발전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는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달 28일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타운홀 미팅을 갖고 향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북지역 소외와 관련 “균형발전 큰 틀서 접근”

“새만금, 전북 핵심 성장축 현대차 투자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뒷받침”

“당이 하나로 단결해 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